

SK E&S, '파킹클라우드' 통해 에너지솔루션 사업 본격화

국내 최대 주차장 네트워크 활용 전국 50여곳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연내 1000여곳까지 확대 추진

'아이파킹' 애플리케이션 통해 주차~충전 원스톱 솔루션 제공



SK E&S의 자회사 '파킹클라우드'가 운영하게 될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SK E&S

SK E&S가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해 '모빌리티 기반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SK E&S는 18일 자회사 '파킹클라우드'가 전국 50여개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킹클라우드'는 일상에서의 편리하고 경제적인 충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차부터 충전까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운전자는 누구나 파킹클라우드의 주차 정보확인/예약 앱 '아이파킹'을 통해 별도의 회원 카드 없이 충전기 정보 확인,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LPR(차량번호인식)

기술을 활용해 충전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차시 주차·충전요금 통합결제와 입점 매장 연계 충전요금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파킹클라우드는 약 5600개 이상의 직영 및 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1위 주차 플랫폼 기업으로,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주차 관제설비 제조 역량도 갖추고 있다.

SK E&S는 파킹클라우드가 보유한 국내 최대 주차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모빌리티 기반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력망의 불안정

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보급 및 분산 자원 확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에너지 사용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ESS(에너지저장장치)와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신산업으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는 '움직이는 ESS'로서 배터리 충·방전을 통해 에너지 소비처이자 공급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산자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SK E&S는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전기 생산·저장·유통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너지솔루션 신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다. 앞서 SK E&S는 지난해 미 전기차 충전기 제조·운영 기업 '에버차지(EverCharge)'를 인수하며, '에너지솔루션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SK E&S 관계자는 "전기차는 주유소가 아닌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 어디에서나 충전이 가능하고, 최소 30분 이상 충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차장이 충전 서비스와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솔루션 사업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크다"며 "전기차를 이동형 ESS로 활용하는 V2X(양방향 충전) 사업, 이동형 고속충전 서비스 등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차별화한 다양한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동 대주주인

NHN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 분야 핵심역량을 보유한 SK 관계사와도 힘을 모은다. 미 초고속충전기 1위 제조사 SK시그넷 및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협력해, SK텔레콤 사물인터넷(IoT) 통신 모뎀을 활용한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의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SK오앤에스와 충전 인프라 설치부터 충전기 통신 품질 분야까지 협력해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파킹클라우드는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주차장 기반 충전소를 1000여곳까지 늘리고, 약 7000개의 완속 및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파킹클라우드의 주요 상업시설 주차장은 물론 전국 SK 관계사 사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태년 파킹클라우드 대표는 "SK E&S의 에너지솔루션 사업 역량과 NHN의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 관련 IT(정보기술) 분야 전문성, SK 관계사들의 전기차 충전 분야 노하우를 활용해 수년 내 국내 전기차 충전사업 분야 선두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온, KAIST와 '배터리 인재' 육성 나서

산학협력 'SKBEP' 개설 MOU 학위취득 동시 SK온 취업 보장



진교원 SK온 사장(COO·왼쪽)과 이승섭 KAIST 부총장이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관 제1회의실에서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인 'SKBEP' 개설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SK온

SK온이 KAIST와 손잡고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직접 육성한다.

SK온은 1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KAIST 본관 제1회의실에서 이승섭 KAIST 부총장, SK온 진교원 사장(최고운영자, COO)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인 'SKBEP(SK on - KAIST Battery Educational Program)' 개설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고급 공학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설에 뜻을 모았다. SKBEP는 지원자들이 석사, 박사 과정 동안 KAIST에서 배터리 연구 관련 소정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SK온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는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배터리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생명화학공학, 화학, 신소재, 전기전자, 전산, AI 등 총 9개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석사, 박사 과정 지원자가 대상이며, 각 과정 합격 후 별도의 면접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된다. 또한, 학위 취득과 동시에 SK온 취업이 보장된다.

SK온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별도의 개인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SK온 현직 연구원과 학생들이 연계, 최신 배터리 기술 특강과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는 등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경연을 선도해온 SK온은 이번 프로그램을 포함, 각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 확보 노력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균관대, 한양대, UNIST와 각각 산학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연세대, 한양대와는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SK온 진교원 사장(COO)은 "SK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탄탄한 연구개발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다"며, "SK온은 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T 에이블스쿨' 2기 대상 잡페어 개최

1기 수료생 취업률 80% 넘어 AI원팀 기업, 스타트업 등 참여

KT는 청년 AI(인공지능)인재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2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KT그룹을 비롯한 AI 원팀 참여 기업,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잡페어(Job Fair)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T를 비롯한 KT 클라우드, 지니뮤직 등의 KT 그룹 내 주요 기업과 AI 원팀 내의 한진그룹, 모빌린트(AI반도체개발), 리플AI(영상콘텐츠), 스타일봇(AI패션플랫폼)과 같은 스타트업들도 참여해 KT 에이블스쿨이 양성한 실무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KT 에이블스쿨은 2021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해 이달 말 3기의 교육 입교

를 앞두고 있다. KT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교육 및 실습 플랫폼 'AIVLE-EDU'를 통해 실시간 강의와 1대1 튜터링을 제공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KT 광역본부를 거점으로 한 교육장도 지원한다.

또 KT 에이블스쿨은 교육생들에게 AI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민간 자격 'AICE'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다양한 경쟁 프로그램을 통한 수상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작성 컨설팅, 모의 면접 등 교육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KT 에이블스쿨 1기 수료생 취업률은 'AI 개발자 트랙'에서 83%, 대부분 비전공자로 구성된 'DX 컨설턴트 트랙'에서 81%에 달한다.

/채윤정 기자 echo@

SKT, 모든 상품·서비스 정보 한곳에

'T월드' 정보허브·종합포털로 개편

SK텔레콤이 모바일 T월드를 개편해 모든 상품·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다. T월드가 고객 서비스 모바일 창구 역할에서 SKT의 정보 허브 & 종합 포털로 변신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던 SKT 관련 상품·서비스의 정

보와 기능들을 한데 모은 모바일 T월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바일 T월드는 2010년부터 SKT 고객 서비스 모바일 접점 역할을 해왔으며, 월 방문자수가 800만을 훌쩍 넘는 SKT의 대표 서비스 접점 채널이다.

SKT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차례에 걸쳐 1만 5000명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T월드 관련 서베이를 진행해 ▲정보 탐색 어려움 ▲더욱 편리하게 이용 희망 ▲분산된 채널로 이용 불편 ▲개인화된 맞춤 추천 희망 등 개선 포인트를 도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T월드는 ▲상품/서비스 정보 전달 강화 ▲고객 서비스 편의성 강화 및 범위 확대 ▲단말 구매까지 원스톱 서비스 ▲고객 맞춤형 오픈링 확대 등을 통해 SKT 관련 정보 허브 및 종합 포털로의 변신을 꾀했다.

/채윤정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글로벌 OTT '디즈니+'를 론칭한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디즈니+' 론칭... OTT라인업 강화

KT스카이라이프가 '디즈니+'를 론칭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실시간 채널과 인기 스트리밍 콘텐츠를 아우르는 개방형 유료방송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선보였다.

최신 안드로이드 셋톱박스(안드로이드 4차) 고객 대상으로 디즈니+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1개월 이내에 모든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